



✓ 진로교육 바로 알기

자녀가 희망하는 미래 직업

전국의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인 '2014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에서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교사(9%),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5%), 회사원(4.5%)순으로, 여학생은 교사(15.6%), 연예인(3.6%),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3.3%)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도 교사(24.4%), 의사(7.2%)를 자녀의 미래 직업으로 꼽아, 자녀와 학부모가 선호하는 직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희망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것 같아서'(61.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아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역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48.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특정 직업으로 선호도가 쏠리기보다 '기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면서 점차 다양한 직업군으로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진로에 관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부모님'을 꼽았는데, 이는 아이들이 진로 설정을 할 때 부모님의 역할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자녀가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지, 관련 직업군 또는 직업 분야별로 탐색하며(커리어넷 www.career.go.kr 참고) 직업에 대한 시야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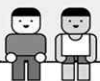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상위 10개 직업	67.7	60.9	50.9	47.7	44.2	37.1
기타	32.3	39.1	49.1	52.3	55.8	62.9

고등학생 희망직업 상위 10개

남: 교사,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 회사원, 경찰관, CEO 등 경영자,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조리사, 컴퓨터 개발자/프로그래머, 연예인, 의사

여: 교사, 연예인, 박사·과학자 등 연구원, 의사, 경찰관, 회사원, 조리사, CEO 등 경영자, 법조인,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 진로상담, 똑..똑..



원하는 꿈과 관련 없는 학과에 가도 괜찮을까요?

Q 고3 딸이 ○○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수시모집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의 꿈과 전공이 관련이 없어 보여서 걱정입니다.

A 특정 직업을 갖기까지 대표적인 경로 한 가지만을 알고, 그 경로에서 벗어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소설가가 되려면 국어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를 전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특정 직업이 꼭 특정 학과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 간호사, 의사 등 교육, 보건·의료 분야의 직업들처럼 반드시 특정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진로 목표와 전공 학과가 일치하면 대학 교육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직업이나 분야로 진출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직업인들 중에는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 비전공자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다양한 진로 경로를 자녀와 함께 찾아보며 대학 진학 후 진로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 직업 경로 이야기

“가수로 데뷔까지 했지만 작사에 재능을 발견했어요” - 김태희(작사가)

■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태희 씨는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네다섯 살 때부터 서울역 시계탑 기둥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곤 했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그녀는 중학교 때는 방송반에 들어가 직접 디제이 멘트도 써보고 팝송을 틀기도 했다. 고등학교 때는 합창단에 들어갔다. 미션스쿨이라 성가대 활동을 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불교 신자였던 그녀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큰 고민 없이 가족이 권유한 불문과에 들어갔다.

■ 열심히 노래하다 보니 음악과 관련된 기회를 얻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계속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음악 동아리에 들어갔고,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을 쌓아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기획사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가수 데뷔의 기회까지 얻게 된 그녀는 앨범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은 가수보다 작사가에 흥미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태희 씨의 성향이 자신이 직접 앞에 나서야 하는 가수보다는 음악과 관련된 다른 직업에 더 잘 맞는다고 느낀 것이다. 그 후부터 태희 씨는 전문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300여 곡의 가요, 드라마·영화의 주제가와 삽입곡을 작사했다.

■ 가사를 쓰는 전문 작사가로 일해요

작사가는 멜로디에 노랫말을 입히는 사람이다. 데모 음원을 받은 후 멜로디가 돋보일 수 있도록 곡에 맞춰 가사를 쓰는 것이다. 즉 전문 작사가의 경우, 멜로디가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싱어송라이터는 가사를 먼저 쓰는 곡을 먼저 쓰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며, 가사에 따라 멜로디가 바뀌어도 된다. 이것이 전문 작사가와의 차이이다. 태희 씨는 전문 작사가로 일하면서 보컬 트레이닝과 출강도 다니고 있다. 태희 씨는 작사가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아이디어와 상상력 등 작가적 기질이 필요한 하지만, 작사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청소년들이 많은 도전과 체험을 해보기를 권한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의 꿈과 만나다-음악 분야(2014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 진로소식




학부모 대상 강좌

강좌명	내 아이 감성코칭으로 바른 인성 기르기(부산)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광주)
내용	자녀 발달단계별 감성코칭 방법, 사례를 통한 갈등 상황 감정코칭 스킬	일시마다 내용이 다른 홈페이지 확인 요망
장소	학부모지원센터 배움실	문선중학교 진로활동실
신청 기간	6. 2.(화) 09:00 ~	2015.05.29. ~ 07.01.
기간	2015.07.07.(화), 07.09.(목) 10:00~12:40	2015.06.03. ~ 07.01. (매주 수요일) 10:00~12:00
문의처	http://www.hakbumo.go.kr/ 051-790-5622	http://hakbumo.gen.go.kr 062-380-4649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오디오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됐어요!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자녀의 진로, 진학 정보를 오디오로
제공하는 진로레시피가 5월부터 시작됐어요!

내용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자녀의 진로, 진학, 직업 관련 정보와 유명 전문가 및 직업인과의 인터뷰 제공
방송기간	- 05월 11일 ~ 12월 31일 -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청취방법	- PC : 팟빵 웹사이트 → '진로레시피' 검색 - 스마트폰 : 팟빵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애플 앱 → '진로레시피' 검색 ▶ e-진로채널 앱 → '진로레시피' 검색
QR코드	 팟빵 앱 다운로드 <div>※ QR코드를 통해 팟빵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div>